

---

 논문
 

---

## 15세기 말 플랑드르 도시 반란의 기록\*

—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

이 해 민

I. 머리말

II. 사료와 역사적 배경

III. 막시밀리안 섭정기 플랑드르 도시  
반란 기록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중세 후기 도시 반란에 대한 기억이 문자로 기록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 제2부 11장-15장은 1482년-1492년에 일어난 막시밀리안과 플랑드르 도시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투쟁을 다루고 있다. 올리비아에는 막시밀리안의 군주로서의 자질과 현명함, 자비로움,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강조한다. 반면에, 플랑드르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비천한 신분의 무능하고 변덕스러운 자들, 군주의 뜻을 오해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또한 도시의 반란을 이끌고 지지했던 플랑드르의 귀족들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왕과 군대를 끌어들이는 잠재적인 배반자로 묘사한다. 한편, 저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기록에는 당시 플랑드르 귀족과 도시들 사이에 존재하던 연대 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18).

## I. 머리말

오늘날 유럽 지도를 보면 알프스 이북 지역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있는 조그만 두 나라가 눈에 들어온다. 마치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둘러싸인 우리 나라를 보는 것 같은 이 작은 나라들은 다른 아닌 영국, 프랑스, 독일에 둘러싸여 있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이다. 중세 시대에 이 지역은 신성로마제국 황제나 프랑스 국왕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봉건 영주들이 지배하던 곳으로서 14세기 후반부터 ‘저지대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sup>1)</sup> 라인 강, 뫼즈(마스) 강, 에스코(스헬더) 강이 북해로 흘러들며 삼각주를 형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15세기 부르고뉴 공국에서는 이 지역을 “이쪽 지방(*pays de par deçà*)”이라 일컫기도 했다.<sup>2)</sup> 그 중에서 플랑드르 백

1) ‘저지대 지방’은 프랑스어로는 *les Pays-Bas*, 영어로는 *Netherlands* 혹은 *the Low Countries*라고 불리는 지명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중세 시대에 저지대 지방은 현대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에도 오늘날 프랑스의 노르(*Nord*)와 파드칼레(*Pas-de-Calais*)도 포함하고 있었다. 현대의 네덜란드 왕국을 지칭할 때 영어권에서는 복수형으로 *Netherlands*라고 쓰지만, 네덜란드인들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네이덜란트(*Netherland*)’라고 부르고 있다. 요한 하위징아도 이러한 용법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복수형 *Netherlands*는 16세기 중엽 벨기에와 홀란드(즉 네덜란드)가 분리되기 전에 이 지역을 아울러서 지칭하는 역사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Johan Huizinga, “How Holland Became A Nation”, Verzamelde werken, Vol. II, Netherland(Haarlem: H. D. Tjeenk Willink en zoon, 1948), pp. 280-281.*

2) 발루아 가문의 부르고뉴 공작들은 자신의 영지들 중에서 남부의 부르고뉴 보다는 주로 북부 지방에서 지내곤 했다. 따라서 공작이 기거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북부의 저지대 지방은 “이쪽 지방”, 그리고 남부의 부르고뉴 공작령과 백작령은 “저쪽 지방(*pays de par delà*)”이라 불리곤 했다. 물론 때로는 “이쪽 지방”과 “저쪽 지방”의 명칭이 공작이 머무는 위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었지만, 보통은 북부가 “이쪽 지방”이라 불렸다. *Pierre Cockshaw, “A propos des Pays de par deçà et des Pays de par delà”,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t. 52, fasc. 2(1974), pp. 386-388.* 이처럼 모호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은 중세 후기에 부르고뉴 공작이 통치하던 영역들을 포괄하여 통칭하는 용어, 즉 ‘국가’나 ‘민족(*nation*)’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작령은 중세 후기 저지대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지배층이나 봉건 군주에 반기를 드는 소요와 반란이 종종 일어나던 곳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중세의 플랑드르는 12세기 코뮌 운동 이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반란과 폭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반란의 본고장’이었다. 부르그뉴 공국 시대에 일어난 주요 반란만 언급하더라도 필리프 대담공(Philippe le Hardi) 시대의 “겐트 전쟁(1379-1385년)”<sup>3)</sup>과 겐트 반란(1401년), 장 무겁공(Jean sans Peur) 혹은 용맹공 시대의 브뤼주 반란(1411년)과 겐트의 반란(1406, 1411, 1414년)<sup>4)</sup>, 필리프 선량공 시대의 브뤼주 반란(1436-1438년)과 겐트 반란(1423, 1432, 1437, 1440, 1449-

---

“부르고뉴 공국(État bourguignon)”은 통치자의 가문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으로, 종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고유명사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도이칠란트’ 혹은 지리적인 명칭에서 유래한 에스파냐와는 차이가 있다. *Ibid.*, p. 273.

- 3) 1381년 잉글랜드 농민 반란과 피렌체의 치옴피(Ciompi) 반란도 이 시대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유럽을 휩쓴 이러한 농민과 도시민의 반란의 물결은 당대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인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 4)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예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사용했던 원어(에 가까운) 발음 표기 대신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현대 벨기에의 인명은 현지 발음에 따라 표기했다). 플랑드르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Brugge(Bruges)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 ‘브루게’와 ‘브뤼주’라는 두 가지 발음을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관용 표기이며 후자는 프랑스어 발음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Brugge는 ‘브뤼허’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 네덜란드어 원 발음에 가까우며 플랑드르어 방언으로는 ‘브뤼거’로 발음된다. 필자는 ‘브루게’라는 관용 표기에 동의하지 않기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한 표기법 중 프랑스어식 표기를 채택했다. 한편, Gent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는 ‘헨트’가 아니라 영어식 발음인 ‘겐트’로 표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언어 및 그 발음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점은 우리 나라에서 합의된 규범에 따라 공통의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반드시 원어 발음을 똑같이 옮겨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네덜란드어의 g 음가는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우리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합의를 보고 있는 프랑스어 표기와는 달리 네덜란드어 (및 플랑드르어)의 경우에는 아직 상이한 표기들이 혼란스럽게 혼용되고 있기에 앞으로 국립국어원과 학계에서 표기 규범 제시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53년), 샤를 대담공(Charles le Hardi)<sup>5)</sup> 시대인 1467년 겐트의 중간 계층이 일으킨 반란 등이 있다.<sup>6)</sup> 또한 1477년 낭시 전투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겨나자 브뤼주, 슬라위스(Sluis), 겐트에서 소요와 반란이 일어났으며, 1492년에 이르기까지 귀족 계층까지 가담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sup>7)</sup> 특히 1482년 마리 드 부르고뉴의 사망 이후에는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까지 개입하는 국제적 규모의 전쟁으로 확장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중세 후기의 문자 텍스트에서 봉건 군주에 대한 도시의 반란과 저항의 역사가 기록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세기 플랑드르에서 일어난 여러 도시 반란 중에서도 특히 막시밀리안 섭정기의 사건 기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의 역사는 현대의 몇몇 서구 학자들의 정치사, 제도사, 사회경제사적 연구를 제외하면 다른 시기에 비해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편인데, ‘역사 해석’, 더 나아가 ‘역사적 신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대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사에서 ‘역사적 신화의 구축’ 혹은 ‘기억의 장소’ 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데에 비해, 저지대 지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막시

5) Cf. 발루아 가문 부르고뉴 공작들의 별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최근 출간되어 국내 독자들이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주경철 교수의 『유럽인 이야기. 1. 중세에서 근대의 별을 본 사람들』(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7)에서 사용한 번역어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6) Jan Dumolyn and Jelle Haemers, “Patterns of Urban Rebellion in Medieval Flanders”, *Journal of Medieval History*, 31(2005), pp. 378-379, 381.

7) Robert Wellens, “La révolte brugeoise de 1488”, *Handelingen van het Genootschap voor Geschiedenis*, Vol. 102, No. 1(1965), pp. 5-52; W. P. Blockmans, “Autocratie ou polyarchie? La lutte pour le pouvoir politique en Flandre de 1482 à 1492, d’après des documents inédits”, *Bulletin de la Commission royale d’histoire*, CXL(1974), pp. 257-368; Jelle Haemers, *For the Common Good?: State Power and Urban Revolts in the Reign of Mary of Burgundy, 1477-1482*(Turnhout: Brepols, 2009). 위에서 언급한 Dumolyn and Haemers, “Patterns of Urban Rebellion”도 참조할 것.

밀리안의 섭정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반란들은 네덜란드 독립 전쟁 시기부터 “외국인” 압제자를 몰아내고자 했던 역사적 선례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관은 19세기에도 나타났다. 예컨대, 19세기 말에 벨기에의 기욤(Henri-Louis-Gustave Guillaume, 1812-1877) 장군은 막시 밀리안에 저항하는 반란을 주도했던 플랑드르 귀족 필리프 드 클레브(Philippe de Clèves, 1459-1528)에 대해 “플랑드르 민중의 영웅”이자 “외국인에게 저항하는 지고한 투쟁에서 벨기에 코핀의 자유를 수호한 투사”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는 물론 19세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관점을 과거의 인물에 투영한 것이다.<sup>8)</sup> 앙리 피렌(Henri Pirenne)을 비롯한 20세기의 사회경제사가들이나 캐서린 에머슨(Catherine Emerson) 같은 중세 문학 전공자들이 비판했던 바로 이런 지점이 역사문화에 관심을 갖는 역사학자에게는 흥미로운 분석의 대상이 된다. 특히 중세 말 근대 초 저지대 지방의 공동체 의식 및 정체성(들)의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15세기 반란의 역사가 기록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의 주제가 중세 후기 플랑드르 도시 반란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특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기록 및 해석 방식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소박한 지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학계에는 아직 생소한 지역과 시대를 다루고 있는 만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사적인 배경에 대해 몇 마디 소개하고자 한다. 앙리 피렌은 부르고뉴 공작들이 정치 체제와 사법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와 농민, 소도시들을 보호한 반면에, 대

---

8) Henri-Louis-Gustave Guillaume, *Le Dernier héros du moyen âge en Belgique, Philippe de Clèves*, par M. le général Guillaume(Bruxelles: impr. de F. Hayez, 1870), pp. 3-4. 반면에, 오늘날 필리프 드 클레브는 플랑드르 도시의 특권과 지역주의의 수호자였다가 나중에 절대왕정의 권력에 매혹된 인물이며 그가 반란에 참여한 이유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Marc Boone, “Introduction”, Jelle Haemers, Céline Van Hoorebeek et Hanno Wijsman (dir.), *Philippe de Clèves (1456-1528): homme politique et bibliophile*(Turnhout: Brepols, 2007), p. 4.

도시 코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좇으면서 산업과 상업의 독과점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sup>9)</sup> 그는 15세기에 일어난 일련의 도시 반란이 부르고뉴 공작의 중앙집권화에 대항하면서 각자의 특권만을 주장하는 이기주의적인 대도시들의 분권화 운동이었으며, 저지대 지방에서 도시는 영국과 프랑스의 귀족 계층처럼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었고 코뮌의 ‘민주주의’는 반란 기간 중에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sup>10)</sup> 또한 막시밀리안 섭정기에 반란을 주도한 겐트를 “프랑스 국왕의 종주권 하에 세워진 자치 공화국(une république autonome sous la suzeraineté royale)”이라고 평가했다.<sup>11)</sup> 피렌의 겐트 대학 동료였던 빅토르 프리스(Victor Fris, 1877-1925) 역시 피렌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sup>12)</sup> 그는 겐트를 비롯한 플랑드르의 코뮌들이 부르고뉴 공작들과 막시밀리안이 세우고자 노력한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적 제도를 파괴하고 중세적인 지방주의(le provincialisme médiéval)를 회복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겐트와 브뤼주의 반란을 “혼란스러운 민중 선동(démagogie turbulente)”, 그리고 반란의 지도자들을 “선동가(démagogue)”라고 부르기까지 했다.<sup>13)</sup>

반면에, 20세기 후반에 미셸 몰라(Michel Mollat)와 필리프 볼프(Philippe Wolff)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해석을 제시했다. 이들은 14세기부터 15세기 중엽 사이에 저지대 지방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도시 반란을 연구하면서 이를 “민중 혁명”의 일환으로 해석했다.<sup>14)</sup> 한편, 벨기에의 중세사학자들은 중세 플랑드르 반란을 도시와

9) Henri Pirenne, *La formation de la nation belge*(G. Mertens, [n.d.]), p. 61.

10) Henri Pirenne, *Les anciennes démocraties des Pays-Bas*(Paris: Flammarion, 1910), pp. 233-248; id., *Histoire de Belgique*, tome II(Bruxelles: La Renaissance du livre, 1973), p. 11 sq.

11) Henri Pirenne, *Histoire de Belgique*, tome II, pp. 112-113.

12) Victor Fris, *Histoire de Gand depuis les origines jusqu'en 1913*, 2<sup>e</sup> édition(Gand: G. De Tavernier, 1930).

13) *Ibid.*, pp. 133, 140, 142, 148.

14) Michel Mollat et Philippe Wolff, *Les Révolutions populaires en Europe aux XIV<sup>e</sup> et XV<sup>e</sup> siècles*(Flammarion, 1993).

국가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접근하면서도 피렌이나 프리스처럼 선과 악의 대립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찰스 틸리(Charles Tilly),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오토 힌체(Otto Hintze) 등의 근대 국가 형성 이론을 수용하며 더 정교한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Wim 블록만스(Wim Blockmans)의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발전상을 대변한다. 그는 1970년대 말에는 플랑드르 도시(특히 겐트)와 막시밀리안 사이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근대적인 중앙집권화와 중세적인 지방분권화의 투쟁으로 파악했다.<sup>15)</sup> 반면에, 약 10여년 후인 1980년대 후반에는 14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난 도시 반란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면서, 이를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며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여전히) 봉건적인 성격을 지니는 군주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을 지키고자 했던 ‘덜 “근대적인”(moins “moderne”)’ 도시들 사이의 충돌로 해석했다.<sup>16)</sup> 왈테르 프레베니어(Walter Prevenier)와 마르크 보너(Marc Boone)도 중세 후기 플랑드르 도시 반란이 이 지역의 특징인 “도시 중심의 지역주의(urban particularism)”를 지향했다고 지적하면서, 플랑드르 도시 반란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연속성 및 공통점을 지니는 현상으로 포괄해서 다루었다.<sup>17)</sup> 21세기에 들어서는 플랑드르 도시 반란의 역사 연구에도 사회사와 문화사의 영향이 침투해서 최근에는 반란의 행위자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15) Blockmans, “Autocratie ou polyarchie?”, pp. 257-368.

16) Wim Blockmans, “Princes conquérants et bourgeois calculateurs. Le poids des réseaux urbains dans la formation des états”, Neithard Bulst et J.-Ph. Genet (éd.), *La Ville, la bourgeoisie et la genèse de l'État moderne (XII<sup>e</sup>-XVIII<sup>e</sup> siècles)*, actes du colloque de Bielefeld, 29 novembre-1<sup>er</sup> décembre 1985(Éd. du CNRS, 1988), pp. 167-181, en part. pp. 176-179.

17) Walter Prevenier and Marc Boone, “The ‘City-State’ Dream”, Johan Decavele (ed.), *Ghent. In Defence of a Rebellious City. History, Art, Culture*(Antwerp: Mercatorfonds, 1989), esp. pp. 103-104; Marc Boone, “Droit de bourgeoisie et particularisme urbain dans la Flandre bourguignonne et habsbourgeoise(1384-1585)”,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74(1996), pp. 707-726.

크나 반란 행위에서 나타나는 정치문화적인 상징과 의례 등에 관한 연구도 배출되고 있다.<sup>18)</sup>

오늘날에는 15세기 플랑드르 도시들이 군주와 국가에 대항했던 투쟁의 역사가 16세기 전반 카를 5세 치세의 도시 반란 및 16세기 후반 필리프 2세 시대에 시작된 네덜란드 독립 혁명과 일종의 “논리적인 연속성”을 지닌다고 평가되고 있다.<sup>19)</sup> 그렇다면 이 시기의 역사가 근대 저지대 지방의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프레페니와 블록만스는 섭정기 내전 발발 원인이 “막시밀리안이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관 위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친 반면에 플랑드르의 삼부회, 귀족, 시민은 부르그뉴 공동체에 기반한 민족적 관념(*pensées nationales-bourguignonnes*)”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플랑드르 도시들은 먼 타국 출신 군주의 이익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우선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부르그뉴 공국 시대의 “부르그뉴 민족주의(*nationalisme bourguignon*)” 형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필리프 선량공 치세 이전까지 저지대 지방의 동족의식 혹은 “민족주의 감정들(*les sentiments de nationalisme*)”은 기본적으로 영주령에 기반하고 있었다. 각 지역민들은 출신에 따라 자신을 플랑드르인, 아르투아인, 브라반트인 등으로 인식했고, 이후 필리프 선량공 시대에 처음으로 ‘부르그뉴’라는 단일 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등장했다. 이러한 “부르그뉴 민족주의”를 붙여넣는 데에는 부르그뉴 공작들의 문화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20)</sup> 1530년 2월 24일 볼로냐에서 열린 카를 5세의 황제 대관식은 저지대 지방에서 “부르그뉴” 공동체가 더 이

18) 예를 들어, Haemers, *For the Common Good?*; Marc Boone, “La justice en spectacle. La justice urbaine en Flandre et la crise du pouvoir «bourguignon»(1477-1488)”, *Revue historique*, n° 625(2003), pp. 43-65.

19) Blockmans, “Princes conquérants et bourgeois calculateurs”, p. 171; Dumolyn and Haemers, “Patterns of Urban Rebellion”, pp. 381-382.

20) Walter Prevenier et Wim Blockmans, *Les Pays-Bas bourguignons*(Anvers: Fonds Mercator), 1983, pp. 198-200.

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 기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정치의 중심이 에스파냐로 옮겨가게 되었고, 저지대 지방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변경 정도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필리프 선량공과 그의 아들 샤를 대담공 시대에 부르고뉴 궁정에서 프랑스 왕실의 모델에 따라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논한 바 있다.<sup>22)</sup> 이러한 정체성 만들기 정책은 궁정사관에 의한 공식적인 역사서술, 신화적인 역사적 기원(트로이 전설)에 대한 탐구, 고대 벨기에 갈리아에 대한 관심, 지역사 서술 등으로 추진되었다.<sup>23)</sup> 이처럼 비교적 최근까지 부르고뉴의 “민족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 형성에 대한 연구는 부르고뉴 궁정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연구 경향이었다. 반면에 최근에는 저지대 지방에서 (복수형의) 정체성이 아래로부터 장기적으로 형성되어나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sup>24)</sup>

이러한 연구 경향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후반 부르고뉴의 연대기 작가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Olivier de La Marche)의 『회고록』에 나타나는 막시밀리안 섭정기의 기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올리비에의 『회고록』이 시대에 따라, 그리고 편집자의 사관에 따라 계속 해석이 바뀌었던 대단히

21) *Ibid.*, p. 202.

22) 예를 들어, Jean Devaux, “L’identité bourguignonne et l’écriture de l’histoire”, *Le Moyen Age*, t. CXII(2006), pp. 467-476.

23) Girart de Roussillon, *ou, L’épopée de Bourgogne*, commenté par Marcel Thomas et Michel Zink; adaptation en français moderne de Roger-Henri Guerrand(Philippe Lebaud, 1990); Graeme Small, *George Chastelain and the Shaping of Valois Burgundy: Political and Historical Culture at Court in the Fifteenth Century*(London: Royal Historical Society; Woodbridge(GB); Rochester(NY): Boydell press, 1997); Christiane Van den Bergen-Pantens (éd.), *Les Chroniques de Hainaut, ou, Les ambitions d’un prince bourguignon*, sous la direction de Pierre Cockshaw([Brussels]: KBR; Turnhout: Brepols, 2000).

24) Robert Stein and Judith Pollmann (eds.), *Networks, Regions and Nations: Shaping Identities in the Low Countries, 1300-1650*(Leiden; Boston; Brill, 2010).

흥미로운 사료이기 때문이다.<sup>25)</sup> 필자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16세기 판본들의 부가텍스트(paratext) 문제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리비에의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sup>26)</sup> 따라서 이 논문에서 그의 『회고록』 텍스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후대의 주석과의 관계를 좀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은 15세기 후반 저지대 지방 역사 및 ‘회고록’이라는 장르 등장 연구를 위한 주요 사료 중 하나이지만, 이 텍스트 자체를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sup>27)</sup>

사료 선택의 두 번째 이유는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가 바로 15세기 후반 플랑드르 도시 반란들을 직접 겪은 인물로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올리비에에는 부르그뉴 궁정에서 활동하면서 부르그뉴 궁정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로서, 그의 역사 서술은 부르그뉴 궁정의 역사문화 속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는 ‘부르그뉴 궁정의 공식 사관(indiciaire)’이었던 조르주 샤텔랭(Georges Chastelain) 및 장 몰리네(Jean Molinet)와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반쯤은 공식적인 부르그뉴 궁정 역사(semi-official Burgundian Court History)”라고 불리기도 한다.<sup>28)</sup> 올리비에 본인은 자신의 집필 목표가 궁정의 공식 사관들에게 일차 사료를 제공하는

25) Catherine Emerson, “Five Centuries of Olivier de La Marche: The Rhetoric of the *Mémoires* in the Hands of Scribes, Editors and Translators”,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83(2005), pp. 1103-1131.

26) 이혜민, 「역사 텍스트의 편집과 주석 달기 - 근대 초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 출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32호(2017.03), 39-71쪽.

27) 올리비에의 『회고록』 텍스트 분석은 당대의 기사도, 장례 관행, 당대 인물에 대한 묘사,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저자의 면모 등 특정 주제들을 다룬 것이 몇 가지 있다. 자세한 참고문헌은 Arlima의 목록을 참조할 것.

[https://www.arlima.net/mp/olivier\\_de\\_la\\_marche.html#mem](https://www.arlima.net/mp/olivier_de_la_marche.html#mem) (최종 검색일: 2017년 5월 3일). 한편, 캐서린 에머슨의 최근 저서는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면서 올리비에가 사용한 수사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8) Catherine Emerson, *Olivier de La Marche and the Rhetoric of Fifteenth-century Historiography*(Rochester, N.Y.: Boydell Press, 2004), pp. 75 sq., esp. p. 80.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최근 캐서린 에머슨은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이 후대의 수용 과정에서 15세기의 콘텍스트를 벗어나 재해석되었으며 특히 제2판의 편집자 장 로텐스(Jean Lautens)가 반 플랑드르적인 인물로서 저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녀는 로텐스판을 비판하면서 올리비에가 반 겐트의 입장을 지녔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겐트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했을 뿐 오히려 궁정 사관들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플랑드르에 대한 문화적인 반감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당시 플랑드르어권 도시였던 브뤼셀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올리비에가 오히려 플랑드르어권의 문화 및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었다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된다.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는 부르고뉴 궁정에서 역사서술을 통해 ‘위로부터’ 부과하고자 했던 부르고뉴인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부르고뉴인의 정체성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인식은 반란을 거치며 혹은 후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더 구체화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이 텍스트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된다. 특히 섭정기의 반란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로텐스의 주석이 가장 길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탤릭체로 인쇄된 편집자의 주석은 페이지의 거의 절반을 점령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점이 에머슨의 비판과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로텐스의 주석을 당대의 부르고뉴(혹은 저지대 지방) 정체성 형성을 보여주는 사료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의 한 두 대목만으로 이러한 질문에 완벽히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실마리를 찾는 방향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9) *Ibid.*, pp. 108-115.

## II. 사료와 역사적 배경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는 15세기 후반 부르고뉴 출신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동시에 시인이자 회고록 작가이다. 그가 1472년부터 1502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저술한 『회고록』은 15세기 후반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주요 사료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부르고뉴 궁정의 화려한 연회와 직접 참전한 전투 및 외교활동 등에 대해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sup>30)</sup> 올리비에는 『회고록』 후반부에서 자신이 나이가 많아 기록한 사건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말하지는 못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목격한 사건 중 중요한 것을 말하고 기록했으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힘주어 말한다.<sup>31)</sup> 다시 말해서, 그는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의 “진실”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은 서문과 1, 2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필리프 선량공의 치세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샤를 대담공의 치세부터 1501년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섭정기의 도시 반란 이야기가 등장하는 제2부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와 그의 『회고록』에 대해서는 이해민, 『역사 텍스트의 편집과 주석 달기』, 45-48쪽에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다.

31)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d'Olivier de La Marche: maître d'hôtel et capitaine des gardes de Charles le Téméraire*, publ. pour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France par Henri Beaune et J. d'Arbaumont, tome III(Paris, 1885), pp. 303-304.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후반 본과 다르모봉의 판본을 인용하고 있다. 앞으로 판본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페이지만 명시한 것은 본과 다르모봉 판을 의미한다. 이들의 판본은 16세기 중엽 드니 소바주(Denis Sauvage)의 초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완전한 의미의 원전비평본(critical edition)은 아니지만, 소바주의 오류를 일부 수정했고 그의 방주 대신 새로운 주석을 대거 삽입하고 있어서 현대 학자들에게 표준적인 판본으로 인용되고 있다.

- 제1장 샤를 드 부르그뉴(샤를 대담공)의 필리프 선량공 승계 (1467년)  
/ 샤를의 리에주 공격 / 잉글랜드와의 관계 및 솜 강 유역 도시  
문제로 일어난 루이 11세와 샤를의 대립
- 제2장 샤를의 보베 공격 / 페론 조약
- 제3장 샤를의 노이스 공격 / 샤를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만남
- 제4장 샤를과 요크의 마거릿의 결혼 (1468년 7월)
- 제5장 샤를의 겔드르와 로렌 취득
- 제6장 스위스인들이 샤를을 2번 패퇴시킴
- 제7장 루이 11세와 샤를 대담공의 9년간 평화 조약 체결 (1475년 9월  
13일)
- 제8장 샤를이 사부아 공작부인 올랑드와 그의 아들을 억류함 / 낭시  
전투 (1477년 1월 5일)
- 제9장 마리 드 부르그뉴와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의 결혼 / 루이 11  
세와의 전투
- 제10장 오스트리아의 마르그리트의 탄생 / 마르그리트와 프랑스 왕세자  
샤를의 결혼<sup>32)</sup> / 루이 11세의 죽음
- 제11장 막시밀리안 대공과 겐트의 전쟁 [전쟁의 발발]
- 제12장 막시밀리안이 겐트와 플랑드르 백작령을 되찾음 [막시밀리안의  
겐트 입성 및 겐트의 폭동]
- 제13장 막시밀리안이 로마인들의 왕으로 선출됨 / 황제 프리드리히 3세  
가 브뤼주 시민들에게 억류된 막시밀리안을 구해냄 [브뤼주의  
반란]
- 제14장 브뤼주와 겐트의 시민들이 막시밀리안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  
및 전쟁의 종식
- 제15장 막시밀리안 치세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의 반복 및 기타 새로운  
일들
- 제16장 막시밀리안과 그의 아들 필리프의 별명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제2부의 텍스트 절반은 샤를 대담공의 치세 (1467-1477년)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막시밀리안의 섭정기와 필리

---

32) 올리비에는 이 대목에서 “결혼(mariag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프 미남공(Philippe le Beau)의 치세(1477-1501년)를 다루고 있다. 『회고록』에서 그려지는 부르고뉴의 역사는 샤를의 치세의 경우 그의 정복전쟁으로, 그리고 막시밀리안의 시대는 플랑드르 귀족 및 도시와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생소하게 여길 수 있는 국내 독자들을 위해 사건의 전체 조망과 개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후에 독자들은 현대 학자들이 넓은 시야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해 낸 사건과 올리비에의 역사기록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분석 중간에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을 덧붙이겠지만, 아래의 내용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에 해당된다.

1477년 1월 5일에 샤를 용맹공이 낭시 전투에서 전사하자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는 부르고뉴 공국의 영지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부르고뉴의 귀족들은 프랑스 국왕에게 매수되어 그에게 투항하거나 아니면 형세를 관망하거나 저항을 선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때 플랑드르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겐트에서는 시민들이 샤를 용맹공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공작의 폭정에 앞잡이 노릇을 하던 치안판사들과 부유한 상층 부르주아들을 처형하고 당시 이 도시에 머물고 있던 마리 드 부르고뉴를 억류했다. 그들은 부르고뉴의 삼부회를 소집하고, 이 삼부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선대 부르고뉴 공작들이 박탈했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sup>33)</sup> 겐트의

33) 겐트는 1449년에 필리프 선량공의 새로운 소금세를 신설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데에 저항하며 반란을 일으켰으며, 1453년에 반란이 진압당한 후에 그 때까지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서는 Peter Arnade, *Realms of Ritual: Burgundian Ceremony and Civic Life in Late Medieval Ghent*(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이해민, 「부르고뉴 공작 선량공 필립의 이미지 정치: 겐트 전쟁과 십자군 원정계획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15호(2008. 03), 19-20쪽을 참조할 것.

시민들은 ‘폭군’ 샤를의 신하 워베르쿠르 경(le sire d’Humbercourt)과 상서(chancelier) 위고네(Hugonet)를 공개 처형했다.<sup>34)</sup> 특히 1477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겐트를 비롯한 플랑드르 도시들은 마리 드 부르그뉴로부터 ‘대특권’을 받아내는 큰 성과를 얻었다. 당시 겐트는 혼란의 시기를 틈타 옛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랑드르의 명목상 군주였던 프랑스 국왕의 지배를 받을 의향은 전혀 없었으며,<sup>35)</sup> 오히려 막시밀리안의 대프랑스 전쟁에 가장 많은 액수의 군자금을 제공했다. 당대의 연대기에는 샤를 용맹공의 전사 직후 겐트에 부르그뉴의 삼부회가 소집되어 마리 드 부르그뉴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건 묘사는 프랑스 국왕에 의한 합병을 거부하는 반프랑스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sup>36)</sup>

부르고뉴 공국의 상속녀 마리 드 부르그뉴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과 결혼했을 때 플랑드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프랑스로부터 부르그뉴 공국을 보호해주는 수호자로 여기며 호의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막시밀리안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제정치(autocratie)에 길들여진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전통적으로 도시의 자유와 특권 유지를 추구해왔던 플랑드르의 대도시들은 막시밀리안이 지역의 역사와 관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타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에게 크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1482년 3월 27일 마리 드 부르그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마리의 아들 필리프 미남공(1478-1506)은 당시 네 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막시밀리안이 섭정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플랑드르의 도시들은 마리의 자녀들은 적법한 후계자로 여겼지만 그녀의 남편인 막시밀리안이 섭정직을 수행하며

34) 이 사건에 대해서는 Boone, “La justice en spectacle”을 참고할 것.

35) Paul Murray Kendall, *Louis XI. The Universal Spider*(London: Phoenix Press, 2001[1st ed. 1971]), pp. 316-317.

36) Prevenier et Blockmans, *Les Pays-Bas bourguignons*, p. 198.

군림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1483년 4월 17일에 플랑드르의 3대 도시인 겐트, 브뤼주, 이프르의 대표자들은 겐트에 모여 막시밀리안에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당시 겐트에 억류되어 있던 어린 필리프 미남공에게 제출했다.<sup>37)</sup> 1484년 여름에는 플랑드르의 도시들과 막시밀리안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다.<sup>38)</sup>

이후 1492년까지 막시밀리안과 플랑드르의 도시들 (특히 겐트)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무력 충돌과 휴전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띠었는데, 브라반트나 홀란드 등 다른 저지대 지방의 영지들이 플랑드르에 등을 돌리고 막시밀리안에게 협조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겐트가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1488년부터 브뤼주 등 여러 플랑드르 도시들이 가세하고 곧 이어서 처음에는 막시밀리안의 진영에 있었던 필리프 드 클레브 같은 귀족까지 플랑드르 편에 서서 참전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내전 기간 중에 겐트는 어린 필리프 미남공을 억류하고 플랑드르 삼부회가 주도하는 섭정 정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했고, 유명한 에피소드로 1488년에 막시밀리안이 브뤼주에서 3개월 반 동안 구금되었다가 플랑드르 도시들의 특권을 보장해줄 것을 약속한 후에 풀려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또한 전쟁 기간 중에 겐트가 봉건법 상의 종주권자인 프랑스 국왕 샤를 8세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프랑스 군대까지 참전했는데, 이는 전쟁이 장기화된

37) Joseph-Bruno-Marie-Constantin Kervyn de Lettenhove, *Histoire de Flandre*, tome 5: *Ducs de Bourgogne (1453-1500). Depuis la paix de Gavre jusqu'aux traités de Damme et de Cadzand*(Bruxelles: A. Vandale, 1850). p. 355. 플랑드르 시민들은 이 의견서에서 막시밀리안이 황금양모 기사단(l'ordre de la Toison d'or) 회합을 주관하는 권리를 갖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그가 부르고뉴 가문 및 플랑드르 지방의 문장을 패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4살짜리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플랑드르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세상에 널리 공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또한 겐트는 섭정참사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피했다.

38) Hermann Wiesflecker, *Maximilian I. Die Fundamente des habsburgischen Weltreiches* (Wien: Verl. für Geschichte und 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Verl., 1991), p. 52 sq.를 참조할 것.

요인 중 하나였다. 이후 1492년에 샤를 8세가 막시밀리안과 화해하며 플랑드르에 등을 돌리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종전에 이르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회고록』 제2부 11장-13장을 중심으로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가 섭정기의 내전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후대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대목은 특히 제2편의 편집자 장 로텐스가 장문의 주석을 길게 붙여 놓은 부분이기에 특히 관심을 끈다.

### III. 막시밀리안 섭정기 플랑드르 도시 반란 기록

#### 1. 반란자들의 면모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는 『회고록』 제2부 11장에서 1480년대 겐트의 반란을 다루고 있다. 그는 제2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프랑스의 상황, 즉 루이 11세의 죽음과 세자 샤를의 왕위 계승에 대해 언급한 후에 11장에서 이야기의 중심을 다시 플랑드르로 옮겨 온다. 우선 올리비에에는 1482년 겐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제 다시 겐트 사람들에게로 되돌아 와 보자. 이들은 어린 군주[필리프 미남공]를 손에 넣고 큰 축제를 벌였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지지자를 어느 정도 얻었는데, 이를 위해 아낌없이 많은 돈을 써서 그들을 매수했다. 이 돈은 백성이 지불한 것이고 겐트 사람들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sup>39)</sup>

올리비에에는 겐트가 반란의 지지자들이 상층 부르주아의 재산이 아닌 인민의 백성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반란의 지지자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고 폄하한다. 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겐트 사람들의 우상이자 신(*l'idolle et le dieu des Gantois*)”이었던 기욤 랭(*Guillaume Rin*)이라는 인물이 겐트의 인민들에게 매수 자금을 지불하는 것이 어

39)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64.

린 군주에게 이롭고 유익한 일이며 그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득했다. 미친한 출신이었던 기욤 랭은 막시밀리안이 플랑드르의 통치나 아들의 후견에는 관심이 없으며 플랑드르의 막대한 부를 독일로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겐트 시민들을 선동했다.<sup>40)</sup> 이와 동시에 저자는 겐트 시민들을 변덕스러운 자들로 묘사한다. 겐트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우상이자 신”으로 모시던 기욤 랭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들은 필리프 드 크레브뢰르(Philippe de Crèvecœur, 1418-1494)가 겐트에 프랑스 군을 끌고 들어오게 한 주범이 기욤 랭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체포해서 겐트의 시장에서 공개 처형한다.<sup>41)</sup>

겐트는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지지도 얻었다. 사부아 공작의 아들인 로몽(Romont) 백작 자크 드 사부아(Jacques de Savoie, 1450-1486)<sup>42)</sup>, 라벤스테인(Ravenstein)의 영주 아돌프 드 클레브(Adolphe de Clèves, 1425-1492)<sup>43)</sup>, 로데베이크 판 그뤼튀서(Lodewijk van Gruuthuse)<sup>44)</sup>,

40) *Ibid.*, pp. 265, 273.

41) *Ibid.*, p. 275: “기욤 랭은 강[겐트]에서 플랑드르의 군주[막시밀리안]나 고위 귀족들보다 더 큰 소리를 냈고 더 많이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갑자기 모두들 그의 처형에 동의했다. 사람들은 그가 단상 위에서 훈계를 늘어놓도록 내버려두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

42)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가 겐트 반란군의 수장으로 지목한 자크 드 사부아는 1479년에 막시밀리안이 이끄는 부르그뉴 군대가 프랑스 군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진느가트(Guinegatte) 전투에 참전했던 인물이다. 황금양모 기사단 단원이었던 원로 귀족 로데베이크 판 그뤼튀서 및 아돌프 드 클레브와 더불어 마리 드 부르그뉴의 통치기에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인물이었으며, 마리 드 부르그뉴 사후에 플랑드르 삼부회가 지정한 3인의 후견인 중 하나였다. Haemers, *For the Common Good?*, pp. 106-113.

43) 부르그뉴 공작 장의 외손자이자 클레브 공작 아돌프의 막내아들이다. 막시밀리안에 반기를 들면서 황금양모 기사단에서 제명되었다. 그의 아들 필리프 드 클레브는 1488년부터 1492년까지 플랑드르의 반란을 이끌었다.

44) 프랑스어로는 루이 드 브뤼주(Louis de Bruges)라 불린다. 그뤼튀서의 영주로서 브뤼주에 거주했다.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4세의 친분으로 윈체스터 백작이 되기도 했다.

필리프 드 베베런(Philippe de Beveren, 1450-1498)<sup>45)</sup>, 트라즈니(Trazegnies) 남작 장, 라센긴(Rasseghien)<sup>46)</sup>의 영주 아드리앵 빌랭(Adrien Villain), 겐트의 수석 바이이(haut bailli)이며 오비(Auby)의 영주인 자크 드 구아(Jacques de Goy) 등이 플랑드르 도시들의 편에 서서 막시밀리안에 맞섰다. 이 대목에 나오는 반란군 수장의 이름들은 바로 반역자 명단을 제시한 것인데, 이후 장 로텐스는 이들을 저지대 지방의 평화와 공익의 수호자로 재해석한다.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는 반란군의 지도자들을 무능한 인물 혹은 반역자로 제시한다. 브라반트와 에노의 군사력을 끌어모은 막시밀리안은 겐트 인근의 아우데나르더(Oudenaarde)<sup>47)</sup> 성채를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이때 성채를 지키고 피에르 메테네(Pierre Metteneye)라는 인물이 포로로 잡힌다. 올리비에에는 성채 함락 당시 그가 부인과 동침하고 있었고 막시밀리안의 군사 작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강조한다.<sup>48)</sup> 또한 올리비에에는 반란의 수괴들이 평화를 해치고 불화를 일으킨 주범이라 성토했다. 1488년 3월 막시밀리안의 억류 사건이 일어나자 겐트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면서 브뤼주 시민들을 적극

45) 부르그뉴 공작 필리프 선량공의 손자로서 그의 부친은 “부르그뉴의 위대한 서자(le Grand bâtard de Bourgogne)”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앙투안(c.1421-1504)이다. 앙투안이 낭시 전투에서 포로가 된 후 루이 11세의 측근이 되고 성 미셸 기사단의 단원이 된 반면에, 그의 아들 필리프는 끝까지 부르그뉴 진영에 남았다. 그는 잠시 막시밀리안과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1490년대에는 플랑드르의 해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했으며 황금양모 기사단의 단원이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귀족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지와 주군이 베푸는 은전에 따라 얼마나 쉽게 진영을 바꿀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특히 앙투안과 필리프 부자는 서로 적대적이었던 주군을 섬겼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에 휘둘리던 당대 귀족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대변한다.

46) Adrien de Rasseghem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는 겐트 반란의 선봉에 섰지만 나중에 배신하여 1492년에 막시밀리안에게 겐트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겐트의 10년 항쟁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이에 격노한 필리프 드 클레브는 그에게 결투장을 보냈고, 아드리앵이 도망쳐 숨자 부하들을 파견하여 그를 찾아내 살해했다.

47) 프랑스어로는 오드나르드(Audenarde)라 불린다.

48)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70.

적으로 도왔는데, 올리비에는 친 프랑스파 인사인 구두장이 안 판 코펜홀러(Jan van Coppenhole)와 그의 일당이 겐트에 “분화(division)”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49)</sup>

올리비에가 플랑드르의 반란군 수뇌부를 겨냥해서 제기한 가장 큰 비판은 이들이 친 프랑스적인 인사들로서 프랑스 군을 끌어들이므로써 플랑드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당시 로몽 백작을 비롯한 플랑드르의 군사 지도자들은 겐트를 비롯한 플랑드르 도시들의 군사를 있는 대로 끌어 모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프랑스 군대를 끌어 들여 겐트를 방어하고자 했다. 이때 프랑스 군의 원수(maréchal) 필리프 드 크레브뢰르<sup>50)</sup>가 군대를 이끌고 겐트로 들어오자,<sup>51)</sup> 그가 어린 필리프 미남공을 프랑스 국왕에게 끌고 가려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sup>52)</sup> 올리비에는 프랑스 군이 겐트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열심히 싸우지 않았으며 때에 따라 이들을 배신할 자들이었다고 평가한다.<sup>53)</sup>

49) *Ibid.*, p. 290.

50) 필리프 드 크레브뢰르는 에스케르드의 영주(seigneur d'Esquerdes)로서 필리프 용맹공의 치세에 아르투아와 피카르디의 총독이었다. 프랑스에 복속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플랑드르 사람들에게 그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었다. 샤를 용맹공이 낭시 전투에서 전사한 직후 루이 11세가 북부 지방을 침공하자 곧바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프랑스 군의 원수가 되어 프랑스 국왕의 북부 부르고뉴 영지 정복에 앞장섰다.

51) 당시 그는 보병 6,000-7,000명, 창병 500명 및 대포 36문을 이끌고 겐트에 입성했다.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71, note 4.

52) *Ibid.* Cf. Joseph Jean de Smet, “Mémoire historique sur la guerre de Maximilien, roi des Romains, contre les villes de Flandres (1482-1488)”, *Mémoires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des Lettres et des Beaux-Arts de Belgique*, t. XXXV(Bruxelles: M. Hayez, 1865), pp. 12-13도 참조할 것. 필리프 드 크레브뢰르가 필리프 미남공을 프랑스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플랑드르인들은 함대를 겐트에 파견했고, 필리프는 이 소식을 듣자 군대를 이끌고 겐트를 빠져나가 투르네(Tournai)로 향했다. 당시 프랑스어권 플랑드르(la Flandre gallicante)에서는 막시밀리안의 섭정보다 프랑스의 지배를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53)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72. 결과적으로 올리비에가 프랑스인들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자는 후반기의 플랑드르 반란을 이끌었던 필리프 드 클레브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한다. 올리비에에는 1488년 5월 16일의 화의 조약이 깨진 후 겐트의 총대장이 된 필리프 드 클레브에게 프랑스 국왕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프랑스의 총사령관(connétable)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비난한다.<sup>54)</sup> 이와 동시에, 필리프 드 클레브가 플랑드르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일화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한다. 1485년 7월 11일 막시밀리안이 겐트에 입성한 후 폭동이 일어났을 때, 폭동 진압의 임무를 부여받은 나사우(Nassau) 백작은 겐트 시위대를 학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필리프가 겐트 시민들의 편을 들면서 겐트를 파괴하지 않고는 이들을 죽일 수 없으며 만약 겐트가 파괴된다면 대공이 “부르고뉴 공국 전체의 꽃과 진주(*la fleur et la perle de tous ses pays*)”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sup>55)</sup> 올리비에가 필리프에게 어느 정도 호의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주군을 배신한 이유가 막시밀리안이 먼저 자신이 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막시밀리안은 1488년 브뤼주에서의 억류 생활에서 풀려날 때 시민들에게 특권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 이 때 필리프 드 클레브가 대신 겐트의 인질이 되면서 만약 막시밀리안이 약속을 어길 경우 왕을 더 이상 주군으로 모시지 않고 겐트와 플랑드르를 돕겠다고 선서했기 때문이다. 중세의 기사도적인 관점에서라면 필리프에 대해 비난할 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54) *Ibid.*, p. 295.

55) *Ibid.*, p. 283: “Mais monseigneur Philippe de Cleves favorisoit les Gantois et disoit à monseigneur l’archiduc qu’il ne se pouvoit [faire] sans detruire Gand, et quant Gand seroit detruite, il perdrait la fleur et la perle de tous ses pays.” 여기에서 우리는 pays를 ‘플랑드르’가 아니라 ‘부르고뉴 공국’으로 번역했다.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막시밀리안이 다스리는 영지들을 아울러서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훌륭한 전사이자 통치자 막시밀리안

제2부 11장에서 저자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겐트인들과 대비시키며 막시밀리안의 군주 및 전사로서의 자질을 강조한다. 특히 막시밀리안의 군사적인 능력은 1484년 11월 26일 덴더르몬더(Dendermonde) 점령전에서 상세하게 제시된다.<sup>56)</sup> 이 전투에서 막시밀리안은 수도사와 수녀로 변장한 병사들을 건초 마차에 태워 도시 안으로 들여보내 시장 광장의 입구를 점령하여 당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sup>57)</sup> 다시 말해서, 막시밀리안이 겪은 굴욕과 수모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그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지략을 이용해 대담한 군사 작전을 펼침으로써 승리를 얻은 사건을 크게 부각시킨다.

이때 우리의 주군이신 대공께서는 순전히 강(Gand)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마음을 먹고 테르몽드(Termonde)를 빼앗을 방법을 은밀히 모색했으며 말린(Malines)에 군대를 소집했다.<sup>58)</sup> [...] 그리고 군사 작전을 더 교묘하게 수행하기 위해 테르몽드 시의 몇몇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전투원 열두 명을 투입했으며 자크 드 푸크솔(Jacques de Fouquesolles)을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몇몇 병사들은 검은 옷을 입은 수도사로, 다른 몇몇은 흰 옷의 수도사로 변장시켰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검은 수녀복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흰 수녀복을 입혔다. 그리고 이들을 수레 두 대에 태워 테르몽드로 보냈다. 이들은 새벽에 테르몽드의 성문에 접근했는데, 그 이유는 대공께 협조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는 시간이 바로 이 때였기 때문이다.<sup>59)</sup>

56) 제2판 이후의 16세기 판본들에는 덴더르몬더 전투가 시작되는 부분에 장 로텐스의 주석이 붙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 4절을 참조할 것.

57) Wiesflecker, *Maximilian I.*, p. 54.

58) 테르몽드는 덴더르몬더의 프랑스어 발음이며 말린은 메헬렌(Mechelen)을 프랑스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올리비에의 텍스트를 직접 인용할 때에는 지명이나 인명의 발음과 철자를 현대화하지 않고 그가 표기한대로 음차해서 옮겼다.

59)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67.

올리비에에는 덴더르몬더 점령전을 대단히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막시밀리안의 지략과 현명함, 그리고 그의 군사적인 능력을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하면서 한껏 부각시킨다. 덴더르몬더를 점령하기 위해 막시밀리안은 “섬세하게(subtilement)” 작전을 세웠고, 변장한 병사들과 주고 받는 신호를 미리 정한 그의 작전은 “아주 잘 짜여(très bien ordonné)” 있었다. 또한 겐트 공격전에서는 “현명하게(saigement)”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막시밀리안의 현명함은 그의 전후 처리에서도 나타난다. 시장 광장을 점령한 막시밀리안은 시민들을 진정시키면서 각자의 집에 머물도록 한다. 그 결과 그는 곧바로 도시에 평화를 회복시킨다.

[...] 다음 날 이 도시는 큰일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공포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이 도시는 약탈이나 살인을 겪지 않고 다시 평화를 찾았다. 대공은 테르몽드에 오래 머물렀다.<sup>60)</sup>

올리비에의 서사에서 막시밀리안은 또한 현명하고 훌륭한 통치자로 묘사된다. 그는 덴더르몬더를 금방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얼마간 머무르면서 도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 이후 겐트 인근의 아우테나르더를 점령할 때에도 막시밀리안은 사람들을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킨다. 또한 여기에서도 그의 군사들이 규율을 잘 지켜서 약탈이나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 다음날 시장의 노점과 상점들이 바로 문을 열고 교역 활동이 재개될 정도로 금방 안정을 되찾는다.<sup>61)</sup> 또한, 겐트와 함께 반란을 시작한 브뤼주의 경우, 전쟁 때문에 교역을 할 수 없어 가난해지고 굶주리는 상황에 염증을 느꼈고 막시밀리안과 화해하기를 원했으며 결국 1490년 12월 6일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저자는 아직은 한참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이 일을 미리 언급하면서 막시밀리안이 브뤼주를 정의롭게 통치하고 상품이 넘쳐나도록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60) *Ibid.*, p. 268.

61)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p. 270-271.

받게 되었다고 칭송한다.<sup>62)</sup>

1484년 텐더르몬더 전투의 승리 후에도 막시밀리안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배하던 도시들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비에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낸다. 막시밀리안은 브뤼셀로 돌아온 후 (올리비에에 따르면) 반란군의 ‘수장’ 자크 드 사부아와 직접 맞서 싸우고자 한다. 하지만 겐트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았던 브뤼셀 시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sup>63)</sup> 이에 어느 날 아침<sup>64)</sup> 막시밀리안은 시청 앞에 행정관들을 비롯한 많은 수의 시민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시청으로 가서 도시 행정관들에게 적에게 맞서 브뤼셀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 이들이 길게 변명을 늘어놓자 막시밀리안은 놀라운 연설을 한다.

“백성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였다. 사실이 그러하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게 되리라.”<sup>65)</sup>

저자는 이어서 막시밀리안이 브뤼셀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도 전한다. 이들은 모두 막시밀리안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선언한다. 이 시점에서 화자인 올리비에에는 자신의 활약상도 은근히 늘어놓는다. 그는 자신이 에노 사람들에게도 브뤼셀 시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전하는 동시에 막시밀리안 대공에게 봉사하라는 명을 전달하라는 임무를 받고 적시에 파견되었다고 말한다.<sup>66)</sup> 이러한 구절은 막시밀리안이 브라반트와 에노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플랑드르를 제외한 모든 부르그뉴 백성들이

62) *Ibid.*, p. 278.

63) *Ibid.*, p. 269.

64) 올리비에의 『회고록』에는 정확한 연대, 날짜, 시간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연도나 날짜는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65)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69. 본과 다르모방 판에서는 이 대목에서 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화법으로 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66) *Ibid.*, p. 269.

섭정의 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막시밀리안이 반란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지지자를 얻었음을 강조한다. 텐더르몬더 성에서는 그에게 동조하던 이가 성문을 열었고 1485년 겐트에서는 “신의 뜻에 따라” 마테이스 페야르트(Matthijs Peyaert)라는 상인들의 수장(grand doyen)이 겐트 시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막시밀리안에게 복종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의 선동을 따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반란군 수장들의 친지와 친구들도 있었다.

선한 신께서는 겐트에서 [...]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위대한 지도자 마티스 페야르트[마테이스 페야르트]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마티스는 겐트 사람들이 군주의 뜻을 거스르며 그의 아들을 억류한 행위, 플랑드르의 파괴, 그리고 매일 매일 일어나는 고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라벤스테인의 영주[아돌프 드 클레브]를 모시는 이들과 그의 가문 사람들이 포함된 상당한 수의 동료들을 이끌면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모았고, 그 수는 상당히 많아서 겐트 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합성을 질렀다. “오스트리아 만세! 어린 주군 만세!” 이들의 기세는 대단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반대를 하지 못했다.<sup>67)</sup>

이로써 “강에는 평화와 주군인 대공의 자애를 원하는 이들만이 남게 되었다.” 올리비에에는 페야르트만 언급하면서 겐트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막시밀리안에게 화해를 청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막시밀리안과의 (일시적인) 화해에는 아돌프 드 클레브, 필리프 드 베베런 등 플랑드르의 귀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리비에의 서사에서 아돌프 드 클레브 본인 보다는 그의 친구와 친척들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후 일어나는 사건에서 아돌프 드 클레브와 필리프 드 베베런은 중간에 슬쩍 조연처럼 등장한다. 이처럼 『회고록』의 서사는 귀족들의 역할보다는 겐트 시민들의 자발적인 복속을 강조하고

67) *Ibid.*, p. 279. 이 에피소드는 제2부 12장에 등장한다.

있다.

또한 올리비에에는 막시밀리안과 그의 군대가 저지른 만행을 은폐한다. 『회고록』의 저자는 막시밀리안이 1485년 7월 7일 겐트에 입성한 후 그의 군사들이 부르주아의 저택에 투숙했는데, 겐트의 부르주아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불만을 터트리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 폴리네의 기록에 따르면, 7월 11일에 일어난 폭동의 발단은 막시밀리안이 데리고 온 독일인 군인들이 겐트에서 일으킨 강간 사건 때문이었다. 강간범들은 곧장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들의 동료 네 명이 이들을 탈옥시키려는 시도를 하다가 들켜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겐트 시민들이 밤새도록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올리비에에는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겐트 시민들의 불만 때문이라고 얼버무린다. 또한 무장 시위 중에 독일과 잉글랜드의 병사에게 살해당한 겐트 시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날 밤에 대공의 저택에서 일어난 일은 상세하게 묘사한다. 폭동이 진정되자 막시밀리안이 주도자들을 잡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하지만, 그 외에는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고 용서했다고 언급함으로써 『회고록』의 저자는 다시 막시밀리안의 자비심과 관용을 강조한다.<sup>68)</sup>

### 3. 1488년 막시밀리안 구금 사건

막시밀리안의 섭정기에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바로 막시밀리안의 브뤼주 구금 사건일 것이다.<sup>69)</sup>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브뤼주의 관광 안내서에 후대의 전설과 함께 언급되곤 한다. 또한 로텐스 판본에는 이 대목에서 편집자의 장문의 주석이 다시 등장한다.

68) *Ibid.*, p. 282. 하지만 실제로 막시밀리안은 앞장서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겐트에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의 특권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번번이 뒤집혀 공수포가 되곤 했다.

69)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과 추이에 대해서는 Wellens, “La révolte brugeoise de 1488”을 참조할 것.

따라서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막시밀리안은 1486년 2월 16일에 로마인들의 왕으로 선출되었다. 이 때 브뤼주에서는 막시밀리안이 브뤼주를 예속시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리비에에는 군대를 보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이 브뤼주를 예속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한다.<sup>70)</sup> 올리비에에는 막시밀리안의 의도를 오해한 브뤼주의 시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그를 크라넨뷔르흐(Craenenburg)라는 식료품 상인의 집에 구금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다. 로마인들의 왕이 된 막시밀리안은 1482년 아라스 조약으로 잃게 된 영토를 수복하고자 했고, 이에 1487년 8-9월부터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플랑드르인들은 프랑스와의 평화를 요구하면서 막시밀리안에게 다시 맞서기 시작했다. 겐트 시는 막시밀리안이 임명한 사법관들을 해임했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평화, 플랑드르 도시들에 대한 모든 특권의 보장, 삼부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타이유세 부과 거부, 프랑스와 잉글랜드 시장에서 플랑드르의 교역 활동 승인을 요구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막시밀리안은 브뤼주에서 삼부회를 소집하고 1487년 12월 16일 2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도시로 들어왔던 것이다. 당시 브뤼주는 플랑드르의 중심 상업 도시 역할을 안트베르펜에 내주었는데, 쇠락의 원인이 막시밀리안 때문이라고 여기며 불만에 가득 찬 상태였다. 더욱이 막시밀리안이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들어오자 독일 병사들이 약탈을 하거나 앓을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1488년 2월에 “당대에 일어난 가장 극적인 사건”인 막시밀리안의 억류 사건이 일어났다.<sup>71)</sup>

막시밀리안이 억류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브뤼주의 시민들은 막시밀리안이 억류되어 있던 집의 창문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서 그를 지지하던 도시의 유력

70)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88.

71) Wellens, “La révolte brugeoise”, pp. 9-11.

자 자크 드 기스텔(Jacques de Guistelle)에게 고문을 가하며 재판을 한 후에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그의 집을 파괴한다. 막시밀리안과 필리프 미남공의 재무관 중 하나인 피에르 랑샬(Pierre Lanchals)은 1488년 3월 15일에 체포되어 공개적으로 고문을 당한 후에 그 다음날 참형에 처해진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친 막시밀리안 인사들이 처형을 당한다.<sup>72)</sup> 1488년 2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브뤼주에서 억류되어 있는 동안 막시밀리안은 평생 가장 큰 굴욕을 당한다. 그런데 올리비에에는 한 술 더 떠서 그가 당한 고통을 극적으로 강조한다.

브뤼주 사람들은 장 그로의 저택에 왕을 머물게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들은 저택 안에 두꺼운 나무로 우리(caige)를 만들고 전체를 쇠로 둘러 싸웠다. 그리고 확실하게 왕을 구금하게 위해 우리 안에 가두었다. 그들은 왕의 식사를 시종드는 시종장, 빵 관리자, 술 따르는 하인, 고기 자르는 시종을 제공했다. 그들은 왕의 입에 대해서는 대접을 잘 했지만, 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하며 억류했다. 그리고 이 억류 생활은 길게 지속되었다.<sup>73)</sup>

그런데 브뤼주 사람들은 막시밀리안의 억류 기간 동안 들어간 비용을 모두 기록했는데,<sup>74)</sup> 그 중에는 나무와 쇠로 만든 우리의 가격은 없었으며 오히려 막시밀리안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으며 대접을 잘 받은 편이었다.<sup>75)</sup> 따라서 막시밀리안이 겪은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올리비에가 대단히 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나라님이 지방 도시의 시민들에게 감금된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막시밀리안과 그의 측근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올리비에에는 계속 브뤼주와 겐트 시민들의 단순 불만으로 원인을 돌리며 그들의 잘못을 탓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막시밀리안의 통치력과 지도력의 부재, 플랑드르 지방 및 사람들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이러

72)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p. 289-290.

73) *Ibid.*, pp. 291-292.

74) Kervyn de Lettenhove, *Histoire de Flandre*, tome 5, p. 423 sq.

75) Olivier de La Marche, *Mémoires*, III, p. 292, note 2.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올리비에의 저서는 ‘회고록’ 장르의 책이 지니고 있는 한계, 즉 주관성(편파성)과 제한적인 시야 같은 문제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는 확고하게 친 막시밀리안파 귀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겐트 시민들을 비롯한 플랑드르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기록은 통치자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궁정의 역사 서술 경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반면에, 당대 플랑드르 도시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4. 16세기 장 로텐스의 주석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은 16세기 중엽까지는 필사본 형태로 제한적으로만 유통되다가 1561년에 프랑스의 편집자 드니 소바주(Denis Sauvage)가 최초로 인쇄본을 출간하면서 다수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566년에 겐트에서 새롭게 편집하고 주석을 붙인 새로운 판본이 장 로텐스에 의해 출간되었다. 로텐스는 소바주의 초판을 비판하는 동시에 『회고록』의 저자도 함께 비판하면서 소바주가 붙인 장 제목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주석을 다수 첨부했다. 로텐스가 새로 읽어낸 『회고록』 텍스트는 반프랑스 및 반합스부르크적인 정치적 지향을 제시하였다.<sup>76)</sup> 이러한 점 때문에 로텐스판이 비판을 받고 로텐스판은 텍스트 연구에서 더 이상 표준적인 판본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성으로 인해 로텐스판은 역사문화와 역사인식 연구에 있어서는 흥미로운 사료가 된다.

로텐스판에는 섭정기의 내전 시작에 관한 서사 부분에 장문의 편집자 주석이 대거 첨부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제2부 11장의 텐더르몬더 전투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는 전쟁(내전)의 원

76) Catherine Emerson, “Five Centuries of Olivier de La Marche”; 이혜민, 「역사 텍스트의 편집과 주석 달기」.

인에 대한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견해를 직설적으로 반박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탤릭체로 쓰인 주석은 방주 정도가 아니라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원문과 병렬되는 새로운 주(主) 텍스트의 형태를 띠기까지 한다.

이 전쟁은 1484년경에 막시밀리안 대공과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사이에서 발발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의 연보 편찬자들에 따르면 [...] 마담 마리 드 부르고뉴의 사후에 대공 나리께서 자녀에게서 귀족의 후견과 정부,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아 스스로 취하려고 꾀했기 때문이다. [...]”<sup>77)</sup>

이에 플랑드르와 브라반트 등지에서는 정치와 행정이 당시 궁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자들, 즉 자기 배만 채우면서 공익(le bien public)을 해치는 “외국인들과 도적놈들의 손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전쟁의 발발 원인이라고 편집자는 강조한다. 이에 1482년 5월 2일 각 지방과 도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공이 삼부회와 지역 유지들의 동의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의 측근들이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품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무기를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 로텐스는 겐트에 매수된 자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막시밀리안의 찬탈 의도와 그 주변의 도적떼

---

77) Olivier de La Marche, *Les memoires de messire Olivier de la Marche, troisiemes edition, reveuë, et augmenté d'un estat particulier de la maison du duc Charles le Hardy, composé du mesme auteur, et non imprimé cy-devant*, (éd.), Jean Laudens, 3<sup>e</sup> éd.(Bruxelles: Hubert Antoine, 1616). p. 624: “C’este guerre s’enflamma entre l’archiduc Maximilien, & les pays de son fils enuiron l’an 1484 dont le motif estoit, suivant noz Annalistes, [...] pource que mondit Seigneur l’Archiduc, apres le trespas de Madame Marie de Bourgogne, entendoit d’emprendre, & tirer à luy la garde noble, & gouvernement de ses enfants, & leur pays, [...].” 사료 접근의 용이성 문제로 이 글에서는 1616년에 위베르 앙투안이 간행한 『회고록』 제3판을 인용했다. 앙투안판에는 로텐스의 주석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같은 외국인들의 탐욕 때문이며, 전쟁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목에서 로텐스는 분명 함스부르크 에스파냐 왕실이 지배하던 당대의 상황을 과거의 사건에 투영하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2부 13장의 막시밀리안의 구금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도 장문의 주석이 등장한다. 올리비에가 “이 때 왕께서 브뤼주를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내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쓴 문장에 주석을 붙이겠다는 표시(\*)를 한 후에 로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자는 여기에서 1486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우리말[플랑드르어]로 쓰인 연대기에 따르면, 이 시기에 수많은 독일인들을 대동한 로마인들의 왕은 카드랑과 에클뤼즈에서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 [...]78)

이어서 편집자는 본문에서 누락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특히 당시 브뤼주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내용은 제11장에서 언급된 막시밀리안의 측근들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로텐스의 주석은 당시 국왕 자문회의(Conseil)의 인사들과 궁정 관료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에 나라가 점점 피폐해졌고 대단히 가난해졌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굶어모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삼부회가 1487년 1월에79) 당시 브뤼주에 머물고 있었던 로마인들의 왕을 “체포하도록(firent [...] arrester)” 했다고 말한다.80) 동시에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불행을 초래한 관료들도 함께

78) *Ibid.*, p. 635: “L’auther passe icy sous silence l’an 1486. auquel le Roy des Romains accompagné de grand nombre d’Allemands, selon nos Croniques vulgaires, fit plusieurs maux en Cadrant & à l’Ecluse [...]”,

79) 로텐스는 1488년 대신 1487년으로 쓰고 있다. 그레고리우스력 도입 이전에는 부활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연대 표기상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80) Olivier de La Marche, *Les memoires*, 3<sup>e</sup> éd., p. 637: “[...] si l’insatiable auarice de plusieurs du Conseil, & d’autres officiers du Roy n’y eust mi empsechement, par laquelle le pais deuint de plus en plus rongé, & mis en extreme pauvreté:

체포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학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로텐스는 막시밀리안이 백성의 분노를 살피지 못하고 플랑드르 도시의 안녕과 명성을 해치는 전쟁을 계속 벌였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비판의 화살을 저자에게도 퍼붓는다. 저자는 중요한 일만 말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편파적인 태도로 사건을 축소해서 말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브뤼주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만을 언급할 뿐 그들의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로텐스는 주석을 통해 섭정기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막시밀리안의 실정과 그의 측근들의 부패 및 과중한 세금, 그리고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피폐와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랑드르어로 쓰인 연대기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부회’가 막시밀리안을 ‘체포하도록’ 했다고 기술함으로써 막시밀리안 구금 사건을 브뤼주라는 일개 도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지대 지방 공동체의 집단적인 저항으로 승화시킨다. 또한 의도적으로 군주에 대해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권력의 신성성에 도전하고자하는 면모까지 보인다. 이러한 점은 합스부르크 왕실을 외국인 지배자라고 선을 그으면서 생겨난 플랑드르, 더 나아가 저지대 지방의 자체적인 공동체 의식과 역사의식의 형성, 다시 말해서 발루아 가문과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자들이 위에서 부여하려고 했던 “부르고뉴 민족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발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

*sans qu'on puis scauoir qu'en deuenoyent tous les deniers, qui se cueillirent continuellement en grand amas: dont les Etats des pais n'y voyons qutre remede, firent en l'an 1487, au mois de Inuier arrester le Roy des Romains, estant lors en la ville de Bruges [...]* 이 문장에서 les Etats des pais가 복수형으로 쓰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수형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로텐스는 플랑드르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삼부회들이 동참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V. 맺음말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은 필자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르고뉴 궁정의 공식 사관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차 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다만 그의 텍스트는 처음에는 일부 독자층에서 필사본 형태로만 유통되었고 궁정 사관들도 그의 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기에 16세기 중엽 이전에는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저서는 부르고뉴인의 정체성(혹은 민족의식)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글은 아니다. 대신 『회고록』은 당대 친 막시밀리안파의 인물이 플랑드르 도시 반란 사건의 기억을 문자로 기록한 일종의 ‘현장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반란자들을 군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불만에 가득차서 무기를 휘두르는 무식하고 비천한 자들로 묘사한다. 겐트를 비롯한 플랑드르 시민들에게 동조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플랑드르의 귀족들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왕에게 빌붙어 변절할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올리비에에는 플랑드르를 제외하면 다른 영지들에서는 막시밀리안에 충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란을 일개 영지의 ‘일탈’로 몰아가고자 하며, 특히 플랑드르가 프랑스와 야합했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플랑드르 반란자들의 대척점에 있는 막시밀리안은 유능하고 현명한 군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가진 인물로 부각된다. 그런데 올리비에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섭정기 반란 사건의 에피소드 중 일부 대목에서는 플랑드르의 도시들과 귀족들이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언뜻 비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필리프 드 클레브가 겐트 주민 학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막시밀리안을 설득하는 모습이나 그와 플랑드르 도시들과의 관계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프랑스어권의 부르고뉴 귀족이 프랑스 왕국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마리 드 부르고뉴의 사후 제국의 신하로 충성하고자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16세기의 편집자 장 로텐스는 저자와 주인공(막시밀리안) 모두를 비판하면서 결국 군주의 실정이 나라를 도탄과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폭정에 항거하는 저지대 지방 삼부회의 역할과 귀족과 평민을 아우르는 반란 지도자들을 부각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궁정의 “외국인들”의 만행을 성토했다. 이는 물론 16세기 당대의 합스부르크 왕실의 폭정에 대한 반감을 역사 텍스트의 해석에 투영한 것이다. 15세기 말에 플랑드르의 다수의 귀족과 시민들이 연합해서 섭정을 자처한 ‘외국인’ 군주에 대항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후 16세기 말 독립전쟁 시기에도 역사적인 선례로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발루아-부르고뉴 및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부르고뉴 민족주의”는 피지배층에까지 깊숙이 뿌리 내린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지배층이 통치 수단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담론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16세기 중엽 이후 다수의 저지대 지방 사람들이 단결하여 새로운 저항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르고뉴 민족주의”가 아닌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막시밀리안과 귀족의 입장이 아닌 저항군의 관점에서 쓴 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은 그 출발점으로 역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자료 한 편의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투고일자: 2017. 5. 3, 심사일자: 2017. 5. 11, 게재확정일자: 2017. 8. 14〉

▶ **주제어** : 플랑드르 도시(Flemish Cities), 반란(Revolt),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Olivier de La Marche), 회고록(Memoires),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of Habsburg)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La Marche, Olivier de, *Les memoires de messire Olivier de la Marche, troisieme edition, reveuë, et augmenté d'un estat particulier de la maison du duc Charles le Hardy, composé du mesme auteur, et non imprimé cy-devant* (éd.), Jean Laudens, 3<sup>e</sup> éd.(Bruxelles: Hubert Antoine, 1616).

\_\_\_\_\_, *Mémoires d'Olivier de La Marche: maître d'hôtel et capitaine des gardes de Charles le Téméraire*, publ. pour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France par Henri Beaune et J. d'Arbaumont, 4 tomes (Paris: Renouard; H. Loones, 1883-1888).

### 2. 연구문헌

이혜민, 「역사 텍스트의 편집과 주석 달기 - 근대 초 올리비에 드 라마르슈의 『회고록』 출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32호(2017.03).

Blockmans, W. P., “Autocratie ou polyarchie? La lutte pour le pouvoir politique en Flandre de 1482 à 1492, d'après des documents inédits”, *Bulletin de la Commission royale d'histoire*, CXL(1974).

Blockmans, Wim et Prevenier, Walter, *Les Pays-Bas bourguignons*, traduit du néerlandais par Alain Dierkens avec la collaboration de Chantal de Hemptinne(Paris: A. Michel, 1983).

Blockmans, Wim, “Princes conquérants et bourgeois calculateurs. Le poids des réseaux urbains dans la formation des états”, Neithard Bulst et J.-Ph. Genet (éd.), *La Ville, la bourgeoisie et la genèse de l'État moderne (XII<sup>e</sup>-XVIII<sup>e</sup> siècles)*, actes du colloque de Bielefeld, 29 novembre-1<sup>er</sup> décembre 1985(Paris: Éd. du CNRS, 1988).

Boone, Marc, “Droit de bourgeoisie et particularisme urbain dans la Flandre bourguignonne et habsbourgeoise (1384-1585)”,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74(1996).

\_\_\_\_\_, “La justice en spectacle. La justice urbaine en Flandre et la crise du pouvoir «bourguignon» (1477-1488)”, *Revue historique*, n° 625 (2003).

- Cockshaw, Pierre, “A propos des Pays de par deçà et des Pays de par delà”,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t. 52, fasc. 2(1974).
- Decavele, Johan (ed.), *Ghent. In Defence of a Rebellious City. History, Art, Culture* (Antwerp: Mercatorfonds, 1989).
- Devaux, Jean, “L'identité bourguignonne et l'écriture de l'histoire”, *Le Moyen Age*, t. CXII(2006).
- Dumolyn, Jan and Haemers, Jelle, “Patterns of Urban Rebellion in Medieval Flanders”, *Journal of Medieval History*, 31(2005).
- Emerson, Catherine, *Olivier de La Marche and the Rhetoric of Fifteenth-century Historiography*(Rochester, N.Y.: Boydell Press, 2004).
- \_\_\_\_\_, “Five Centuries of Olivier de La Marche: The Rhetoric of the *Mémoires* in the Hands of Scribes, Editors and Translators”,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83(2005).
- Fris, Victor, *Histoire de Gand depuis les origines jusqu'en 1913*, 2<sup>e</sup> édition(Gand: G. De Tavernier, 1930).
- Haemers, Jelle, *For the Common Good?: State Power and Urban Revolts in the Reign of Mary of Burgundy, 1477-1482*(Turnhout: Brepols, 2009).
- Huizinga, Johan, “How Holland Became A Nation”, *Verzamelde werken*, Vol. II, Netherland(Haarlem: H. D. Tjeenk Willink en zoon, 1948).
- Kendall, Paul Murray, *Louis XI. The Universal Spider*(London: Phoenix Press, 2001[1st ed., 1971]).
- Kervyn de Lettenhove, Joseph-Bruno-Marie-Constantin, *Histoire de Flandre*, tome 5: *Ducs de Bourgogne (1453-1500). Depuis la paix de Gavre jusqu'aux traités de Damme et de Cadzand*(Bruxelles: A. Vandale, 1850).
- Smet, Joseph Jean de, “Mémoire historique sur la guerre de Maximilien, roi des Romains, contre les villes de Flandres (1482-1488)”, *Mémoires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 des Lettres et des Beaux-Arts de Belgique*, t. XXXV(Bruxelles: M. Hayez, 1865).
- Pirenne, Henri, *La formation de la nation belge*(Paris: G. Mertens, [n.d.]).
- \_\_\_\_\_, *Les anciennes démocraties des Pays-Bas*(Paris: Flammarion, 1910).
- \_\_\_\_\_, *Histoire de Belgique des origines à nos jours*, rééd., 5 tomes (Bruxelles: La Renaissance du livre, 1972-1975).
- Wellens, Robert, “La révolte brugeoise de 1488”, *Handelingen van het Genootschap voor Geschiedenis*, Vol. 102, No. 1(1965).

Wiesflecker, Hermann, *Maximilian I. Die Fundamente des habsburgischen Weltreiches*  
(Wien: Verl. für Geschichte und 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Verl.,  
1991).

〈Résumé〉

**Écrire sur les révoltes des villes flamandes  
dans les *Mémoires* d'Olivier de La Marche**

Hye-Min LEE

Cet article traite de la manière dont les souvenirs historiques de la révolte des villes flamandes de la fin du XV<sup>e</sup> siècle sont écrites dans les *Mémoires* d'Olivier de La Marche. Les chapitres 11-15 de la partie II de ce livre racontent des luttes politiques et militaires des villes flamandes, en particulier celles de Gand, contre Maximilien de Habsbourg entre 1482-1492. La Marche met l'accent sur la sagesse de Maximilien, sa pitié envers le peuple, ses qualités de monarque et sa capacité militaire remarquable. D'autre part, l'auteur dépeint le peuple flamand comme un homme de naissance humble, incompetent, inconstant, traître, comme rempli de plaintes et mal compris de l'intention de son prince. Il dépeint également les nobles flamands qui ont dirigé et soutenu la révolte des villes de Flandre comme des traîtres potentiels en faveur du roi de France. En même temps, ses *Mémoires* dévoilent, de façon indirecte et involontaire, un sentiment de solidarité entre les aristocrates et les bourgeois de Flandre.

〈Abstract〉

**Writing on Revolts of Flemish Cities  
in the *Mémoires* of Olivier de La Marche**

Hye-Min LE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way in which historical memories of the late 15<sup>th</sup> century's rebellion of Flemish cities are recorded in the *Mémoires* of Olivier de La Marche. The chapters 11-15 in Part II of this book recount the political and military struggles of the Flemish cities, especially those of Ghent against the Maximilian of Habsburg between 1482-1492. La Marche emphasizes Maximilian's wisdom, mercy to the people, qualities as a monarch, and outstanding military 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author depicts Flemish people as men of humble birth, incompetent, fickle, treacherous, filled with complaints, and ignorant of their prince's intention. La Marche also portrays the Flemish nobles who led and supported the revolt of the cities of Flanders as potential traitors in favor of the French king. Furthermore, La Marche's text reveals, indirectly and unintentionally, a sense of solidarity between Flemish aristocracy and bourgeois.